

E1 구자용 회장 3400주 증여

E1은 구자용 대표이사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3400주를 6월9일 구희나, 구희연 씨에게 증여했다고 6월 15일 공시했다.

<화학저널 2011/06/15>